

자유학기제 현장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울산 옥동중 ‘세계를 내 손에, 독도사랑 나라사랑’ 입체지형도 만들며 ‘독도는 우리 땅’ 배워요



독도 티셔츠를 꾸미고 있는 울산 옥동중 학생(왼쪽)과 세계지도 퍼즐을 맞추고 있는 학생들. 옥동중 제공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독도에 대한 일본의 사실 왜곡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독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2017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 수업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독도교육 방식을 두고 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울산 옥동중은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독도 교육을 실시한다.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세계를 내 손에, 독도사랑 나라사랑’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쌓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 독도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에 등장하는 세계 지리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이 수업은 지난해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사례집’에 소개된 바 있다.

울산 옥동중은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후 매년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왔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세계를 내 손에, 독도사랑 나라사랑’은 매주 월요일 블록타임으로 묶인 5, 6교시에 총 16차시로 진행됐

다. △오리엔테이션(2차시) △자유학기제 에코백 만들기(2차시) △세계지도 퍼즐 맞추기(2차시) △내 손으로 세계 지도 만들기(2차시) △세계의 랜드마크 만들기(2차시) △독도사랑 면티 만들기(2차시) △독도 입체지형도 만들기(2차시) △독도 입체모형색칠하기(2차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모두 모둠별로 진행됐다.

세계지도 직접 만들며 수업내용 복습

1, 2차시에는 전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모둠을 구성한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여러 학급에서 온 학생들이 모이는 수업이기 때문에 서로 초상화를 그려보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3, 4차시에 학생들은 친환경 에코백에 자유학기제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5, 6차시는 세계지도 퍼즐을 모둠별로 맞춰보며 여러 국가들의 이름과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이다. 세계지도 퍼즐을 활용해 ‘세계 지방시와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곳은?’ ‘북쪽과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아르헨티나, 서쪽은 페루와 칠레에 접하는 나라는?’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이 수업을 기획한 김미화 사회 교사는 “직접 세계지도 퍼즐을 맞추고 그려보면서 1학기 때 배웠던 위도, 적도, 날짜 변경선 등의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7, 8차시는 각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랜드마크)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이다. 전지 크기의 세계 지도에 나라 이름을 적고 해당 국가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9, 10차시에는 모둠별로 2개 국가의 랜드마크를 입체 퍼즐로 만들어 보는데, 각 모듬이 어떤 국가, 어떤 랜드마크를 선택할지를 7, 8차시에 정한다. 9, 10차시 수업 시작 전 교사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에펠탑 등 학생들이 선정한 랜드마크의 종이 입체 퍼즐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9, 10차시에 학생들은 종이 입체 퍼즐을 제작한 뒤 랜드마크의 특징, 위치, 상징성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발표한다.

김 교사는 “평소 글과 사진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색칠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세계 곳곳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독도 사랑하는 마음 배워

11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

11, 12차시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전국 중학교에 배포하는 ‘독도 바로알기’ 교재를 활용해 독도의 지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흰 면 티셔츠에 독도를 그려보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꾸민다.

13, 14차시에는 독도의 지형 및 독도와 관련된 역사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후 입체지형도를 만들어보며 독도의 등고선, 독도를 대표하는 바위의 위치 등에 대해 학습한다. 15, 16차시에는 독도 입체모형을 색칠해보며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와 일본과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완성된 작품을 하나씩 함께 감상하면서 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독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교 내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곤 한다”면서 “독도와 관련된 모듬 활동을 하면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미화 울산 옥동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재미있게 배우는 독도, 흥미와 관심 커져요”



모듬 별로 세계지도를 그리고 있는 울산 옥동중 학생들. 옥동중 제공



독도 입체지형도를 만들고 있는 울산 옥동중 학생들. 옥동중 제공

‘세계를 내 손에, 독도사랑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미화 울산 옥동중 사회 교사는 “교과서로만 배우던 내용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눈으로 확인하니 교과 개념도 훨씬 수월하게 이해했다”면서 “수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독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내 손에, 독도사랑 나라사랑’ 수업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진행한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사회과 교사다 보니 평소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도’에 관심이 있어 평소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독도 사랑과 관련된 역사탐구반 수업을 계속 해왔다. 독도와 관련된 공모전이나 대회가 있으면 학생들과 함께 준비해 참여하기도 했다. 학생들도 독도에 대해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고 이와 관련된 자유학기제 수업을 기획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독도에 관한 수업을 계속 해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정리했고, 이를 자유학기제에 맞게 재구성했다.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방식이나 지도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현재의 수업이 완성됐다. 매년 학생들의 성향, 수업 환경, 사회적 이슈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Q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피드백 해줘야 하는 점이 다소 힘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보완해가면서 점점 어려움이 사라졌다.

옥동중의 경우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었지만,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주어진 예산에 맞춰 모듬 편성을 조정하거나 수업 시수를 줄이는 식으로 수업 구성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한다.

Q 수업의 효과는?

세계지도 그리기, 랜드마크 만들기, 입체지형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 독도에 대해 재미있게 학습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단순히 암기식 학습을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독도 동도의 높이는 96.8m, 서도의 높이는 168.5m이다’와 같은 내용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과, 학생이 직접 독도의 입체지형도를 만든 뒤 그것을 바탕으로 독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높이를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입체지형도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독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독도를 둘러싼 다양한 일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 이 수업을 계기로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둠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다.

▶김미화 울산 옥동중 사회 교사

교사의수업지도 도움말

“2학기 독도의 날과 맞추면 더욱 효과적”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다만 수업이 2시간 연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학생은 모둠 학습에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물어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이 좋다.

만약 학생이 모둠활동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할 경우 최대한 모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되, 여분의 재료가 있다면 개인 활동을 허용해도 크게 상관없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수시로 모둠별 상황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원활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수업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만들기 활동에만 치중되지 않게 하려면?

사회 교과 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이지만 세계지도 퍼즐 맞추기, 랜드마크 입체퍼즐 맞추기, 세계지도 그리기, 독도 입체지형도 만들기 등 교구를 활용하는 활동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미술 수업으로 끝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난 뒤 모둠별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을 랜드마크로 정해 입체퍼즐로 콜로세움을 만들었다면,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됐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개막식을 올렸다’ ‘콜로세움은 원형의 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를 보러 오는 약 5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와 같은 배경지식을 직접 찾아 정리한 뒤 앞에 나와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만들기-자료 찾기-발표와 같은 구성으로 수업을 해야 ‘흥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제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전국 중학교에 배포하는 ‘독도 바로알기’ 교재나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독도 관련 영상을 활용해 수업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다른 교사들이 독도 교육에 활용한 수업 사례집을 참고하거나 재구성하면 수업을 더욱 쉽게 기획할 수 있다.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라면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독도의 날과 그 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독도의 역사, 일본과의 관계, 독도의 특징 등을 설명하면 독도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